

“내가 이재명 대항마” 국힘 당권주자들 세불리기 경쟁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조선 의원 공부 모임 등 참석 원의 인사 전방위 접촉...표심 잡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자들의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조선·다선 의원들을 비롯한 원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접촉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들이 이 대표의 대항마라는 점을 강조하고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4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 의원 공부 모임’

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조선은 44명으로, 108명의 당 소속 의원을 선수(選數)별로 나뉘었을 때 가장 많다. 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의 기초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 전 비대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쟁점 조사에서 73%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감옥 가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데도 괜찮느냐’고 국민에게 생각할 지점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자연된 정의는 부정의”라며 “다수

야당을 앞세운 재판 지연, 수사 방해, 국민적 의혹이라는 정치적 핑계를 대 모든 것을 특검으로 끌어오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25년 전 나라를 구한 조선’이라고 소개한 뒤 “함께한 조선 정치인들이 지금은 모두 국가와 정당의 주요 지도자로 성장했다”며 “조선 의원 활동을 모든 방향에서 지원하는 활력있는 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며 “이렇게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며 “조선들이 소신에 따라 개혁적으로 활동할 장을 펼쳐드리려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표도 부탁드린다”고 지지

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진짜 혁신은 깨어있는 당원들로부터 시작된다. 당을 사랑하면 분노해야 한다. 분노가 있어야 혁신한다”며 “헌법 84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하며 느낀 교훈은 ‘줄 서지 말라’는 것이다. 권력을 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보는 정치를 꼭 해달라”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들은 이날 전일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이들은 전남 수도권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이 주축이 된 원의 모임 ‘성찰과 각오’를 찾아 지구당 부활 등을 공약하며 표심을 호소한 바 있다. 당권 주자들은 25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사퇴 후 두 달여 만에 돌아온 여의도에 ‘복귀 신고식’을 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함께 식사했던 당사 경비·시설·청소직원들을 다시 만나 오찬을 하고, 오후 국회에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을 만난다. 나 의원은 지난 주말 대구·경북(TK) 단재장들을 만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했다. 그는 오 시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민심을 잘 얻어야 우리 당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김민진·인요한 의원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준비를 마쳤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연임 도전 앞두고 민주 당대표 사퇴

“불출마 확정했다면 사퇴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다가오는 8·18 전당대회 대표직 출마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로서는 당이 자유롭게 지금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또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오늘)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실 웃어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대까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는다. 최고위원들은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 “원 구성 즉시 개헌특위 구성”

“지금이 개헌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공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

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젠과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도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6만여명의임차인이1인당 평균 416만원(총 2565억원) 이 넘는 임대료 부담을 감면 받았으나, 세액공제로 줄어든 세수(1174억원)는 감면된 임대료의 절반에도 못미쳐 효과적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구) 국회의원은 24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으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착한임대인 조세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를 감면한 임차인은 총 3만8329명으로 감면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6만15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감면한 임대료는 2565억원에 달했고,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1174억원이었다.

안 의장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고, 폐업자 수는 91.1만명으로 전년대비 11.1만명 증가한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도를 상시화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